

# “대국 중 혼잣말 하거나 모자 쓰면 경고”

한국기원이 바둑 경기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기 규칙은 만들어 지 지 10여 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엉성하기 때문이다.

또 실수로 바둑알을 놓지 않고 시간을 재는 계시기기를 먼저 눌러 반칙패를 당하는 등 규정이 모호해 경기 도중 말씨가 잦아 대대적인 규정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기원은 “김수장, 안조영, 김만수, 최명훈, 박승철 등 바둑 전문가들로 구성된 ‘룰 위원회’에서 경기 규칙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모임을 갖고 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11월 프로 바둑 기사 총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개정되는 규칙에는 경기 중 반칙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대국 중 상대방에게 방해물을 주는 행위로 현재 규칙에는 ▲부채를 손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경우 ▲바둑알 달그락거리는 소리 ▲호두 굴리는 소리 등에 대해 1차 경고, 2차

한국기원, 바둑 룰 손질 착수...내년부터 개정안 시행 반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조항 등 신설은 보류기로



입회인이 해당 물건을 압수한다지만 규정 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등 규정 자체에 허점이 많다. 개정안에는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포함됐으며, 대국 중 모자를 써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반면 논란이 됐던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 금지 조항 신설은 보류하기로 했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시기 사용은 ‘착수를 한 뒤 손으로 계시기기를 누른다(암손 사용 금지)’는 조항 신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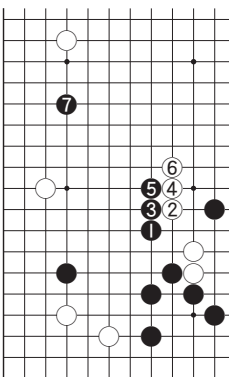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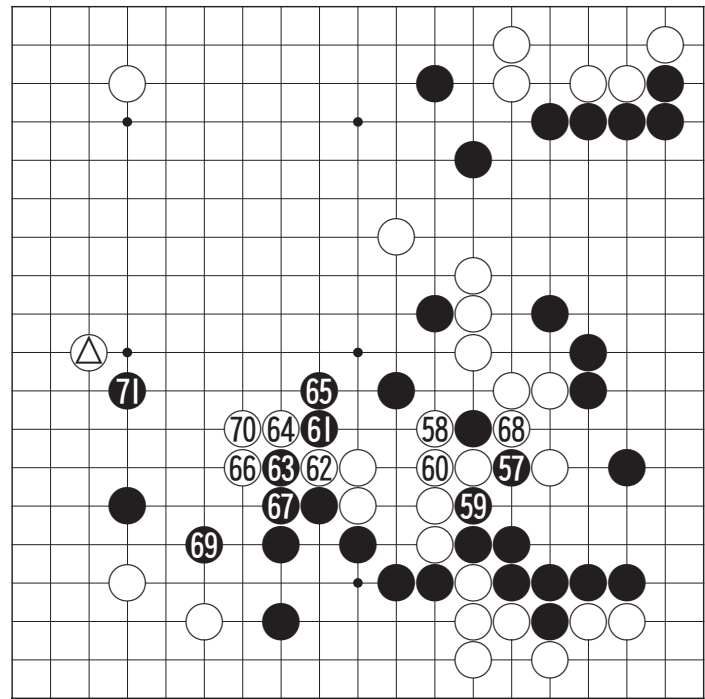
계시기 사용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 9일 한국기원 2층에서 열린 제10기 맥스 커피배 입선연승최강전 예선 1회전에서 벌어진 실력 사건 때문이다.

이날 백승호·문명근 9단의 경기 도중 백승호가 바둑판에 돌을 놓지 않고 초읽기 계시기기 단추를 눌러 실력 처리됐다.

계시기는 상대방이 바둑을 두기 위해 허비한 시간을 재기 위해 내가 바둑을 둔 뒤 눌러서 상대방의 시계가 돌아가게 해주는 기계이며, 시간 제한과 초읽기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착수를 한 뒤 누르는 게 원칙이지만 실수로 잘못 눌렀다 하더라도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날도 문명근의 거센 항의로 입회인인 서봉수 9단이 최종 실력 처리 한 것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무리한 봉쇄  
개입전 결승전 5보 (57~71)  
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 교사회)



흔히 공격적인 기풍을 가진 기사들은 수비에는 허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 있다. 흑 61로 한칸 뚫 수가 또 무리수가 되고 있다. 이 수는 공격하는 입장이지만 기본좋은 봉쇄가 된다. 그러나 상하가 얽은 흑의 입장에서 단점을 노출하여 위험한 수가 된다. 과연 박광주 5단이 백 62로 나가 64로 제각 끊어버리자 흑이 무리했음이 즉시 드러난다. 이렇게 된 이상 흑 65로 늘 수밖에 없는데 백 66의 한방이 빼아프고 70으로 잇자 상하의 흑이 허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흑 61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두는 것이 정수로 백은 2로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랬으면 백도 가운데의 한점이 없어서 불안했던 것이다. 흑 71로 두었으나 앞길에 험난해 보인다. <규정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조선족 기사’ 박문요를 아시나요

조선족 프로기사 박문요 5단이 제4회 도요타배 결승에 오르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박문요는 지난 8월 열린 이 대회에서 세계최강 이창호, 목진석 9단 등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박문요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갔다. 1년 후 박문요는 국가수령대 출신인 이창호를 꺾고, 삼성화재배 대회에 참여하면서 국내 독자의 지지를 받아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야 박문요는 중국 랭킹

이창호·목진석 등 꺾고  
도요타배 결승 올라 '파란'

에서 8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어 제6회 초상 은평배에서 천아오에 9단을 꺾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랭킹은 5위, 세계대회 성적은 8승2패이다. 이처럼 과란장항한 바둑 여정을 걸어온 박문요가 도요타배 결승에서 중국 랭킹 1위인 구리 9단을 이기고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나갈지 바둑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원성진, 역시 ‘센돌 천적’

GS칼텍스배 본선서 불계승 공동선두 올라

‘센돌 천적’에도 천적은 있다. 이세돌 9단은 한국 프로 바둑기사 랭킹에서 11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선수이다. 하지만 이세돌은 유독 원성진 9단을 만나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원성진이 이세돌의 발목을 잡는 천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성진은 지난 8월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GS칼텍스배 본선 리그 제 16국에서 이세돌을 불계로 물리쳤다. 이로써 원성진은 이 대회에서 3승1패로 조한승 최철찬과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이날 원성진은 일찌감치 초읽기에 몰려 힘들게 경기를 끌었지만 중요한 승부처에서 빈틈없는 수읽기로 ‘센돌’의 대마를 잡았다. 원성진은 명인전에서도 최근 3연승을 거두며 단독 2위로 부상, 결승 진출이 유력하다. 반면 도전권 경쟁의 중요한 순간에 알맞게 만난 천적 원성진에게 무릎을 꿇은 이세돌은 2승2패가 돼 우승에서 한 발 멀어졌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바둑 고수들 태백산 ‘신선 놀음’

내달 3일 배달바둑 한마당축제

이창호·유창혁 9단이 태백산에서 ‘신선 놀음’을 한다. 개천절인 10월 3일 열리는 제7회 배달바둑 한마당축제에 세계 최정상급인 이창호와 유창혁을 비롯해 국내외의 프로 및 아마 최고

수들이 태백산에 총집결한다. 강원일보사와 태백시가 주최하고 태백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배달바둑 한마당축제는 어느 해보다 많은 국내외 최정상 프로 및 아마기사가 참가한다. 이날 오전 10시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조재현 한국기원기사회장을 비롯 허창희, 김일환 기사와 김영수 8단, 한종진 7단 등 프로기사와 100여명의 국내 최정상급 아마기사가 대결을 펼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산상대국은 이날 태백산 정상 천제전에서 이창호 9단과 유창혁 9단의 대국으로 펼쳐진다. /강원일보=황민진 기자 hmj@

### 22일부터 ‘세계 경제인 바둑축전’ 열린다

세계바둑교류협회가 주최하는 ‘2008 하이 서울 세계경제인바둑축전’이 오는 22~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몽골, 태국, 러시아, 독일,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남아프리카 등 세계 23개국

에서 경제계의 바둑 애호가들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각국 별로 한 명씩 모두 5명이 1개의 다국적 팀을 구성해 단체전을 벌이는 독특한 경기 방식을 채택, 세계 경제인들이 바둑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목과 우정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시지경제 토지시도 리안이 개발라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9기 원생모집. 실전경매, 이성근 교수, 민사집행법, 연제호 교수, 종류별투자, 박승성 교수, 토지특강, 정용현 교수, 권리분석, 김남인 교수, 낙찰사례분석, 안중현 교수, 리노베이션, 양은열 교수, 인도 및 명도, 조재필 교수, 유치권/지상권, 김홍식 교수, 임대차보호법, 이성실 교수. 모집기간: 2008년 8월 27일 ~ 9월 25일 (09:00~17:00). 장소: 호남대 행정대학원 (쌍촌동 본관). 무료 공개강좌. 일시: 2008.9.17(수), 2008.9.24(수) 오후 2시 / 7시. 접수방법: 전화예약 (선착순 마감).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부동산경매사협회 후원.

대승공인중개사. 토지구획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평의변경가능) 60㎡대 2억 2천만 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2종 입구 상업용지 500㎡ 2.10만, ▶수완지구 단입평형 170세대 정문앞 아주재까지 330㎡ 3.3㎡당 450만원, ▶광산구 수완동 35㎡ 대면부 자연녹지 1,762㎡ 4,231㎡ ㎡당 70만(분할가능). ▶광산구 신촌동 광순간데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용지 286㎡ 매가 2억 9,000만 원, ▶광산구 유계동 144,300㎡ ㎡당 41,000원,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데크변 대지 1,638㎡ 3.3㎡당 480만원, ▶순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사비) 있음) 매가가 2억 3천만원.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들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변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정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정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정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함평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시원 대지 537㎡(163평) 4층 15억, ▶광주 동구 동천동 320㎡ 대지 294(89평) 4억, ▶동평지구 3면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광산동 대면부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원.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지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대지 3,966(1,200평) 2억4천만, ▶운림동 대지 1,090(330평) 4억3천만, ▶동천동 25㎡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천일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안평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창동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6천만,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회산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1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이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관리지역 330평 3.3㎡당 400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 3.3㎡당 6천원, ▶화순 이만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면부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종합@ 대로변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지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수완지구 4000세대 독립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주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마트/제과점/미용실/세탁사/문구점/피자/김밥나라/청과/정육/치킨포프/떡집/간장원/안경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 평수: 60평/40평/25평/13평/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 후 상가 입주 시 잔금납부, 용자가 부담, 방문상담 환영합니다.